

## 한국안광학회 – 이달의 학술논문 소개

- \* 본 논문은 한국안광학회지 제22권 1호(2017년 3월 31일 발행) 게재 논문으로 저자는 학회의 동의하에 요약 발췌본을 제출하였습니다.
- \* 논문의 판권은 한국안광학회에 있습니다.

# 전국 안경원 및 안경사 현황을 통한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

이완석<sup>1</sup>, 예기훈<sup>2</sup>(<sup>1</sup>성덕대학교 안경광학과, 영천 38801 / <sup>2</sup>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천안 31065)

◆목적 : 본 연구는 현재 전국 대학의 안경광학과와 전국 안경사 수급 현황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안경원 개설 및 안경사 인력 배출을 위한 정책과 기초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방법 : 모든 안경광학과 현황 자료는 대한안경사협회 그리고 국가고시원 포털에서 제공하는 안경사의 합격률과 인원 현황 자료의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2016년 대한안경사협회 기준 활동 등록 안경사는 17,059명으로 인구 대비 약 3,020명당 1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경원 개설자는 2013년 기준 대비 2016년에는 10.72%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국 안경사 취업자의 경우 2013년 5,233명에서 2016년 7,223명으로 매년 안경원 취업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안경사 면허증 취득 후 안경업계 미종사자의 수는 2013년 1279명에서 2016년 1,627명으로 27.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실제 현장에 공급가능한 안경사 수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협회 등록률을 강화시키고 면허 취득 후 잠재적인 공급자로 남아 있는 미종사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우수한 여성안경사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분화된 직업 환경과 파트 타임의 합리적인 보상제도가 있어야하며, 검안 및 조제가공비가 국민 안보건을 위한 전문적인 부분임을 인식시켜 이를 고정 비용으로 현실화해야한다. 안경사가 안보건 전문가로서 존경받는 직업으로 인식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의료의 틀 안에서 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안경원 현황, 안경사 수, 안경광학과, 안경사 인력수급

Corresponding author : Ki-Hun Ye, TEL: +82-41-550-2180, E-mail: ye kihun@hanmil.net

## - 서론 -

다양한 미디어의 사용을 통해 생활 속 대부분의 정보를 습득함에 따라 눈의 사용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율도 1985년 최초 전국 안경 인구 조사 당시 인구의 22.5%에서 2015년 54.6%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인구의 1/2이상이 시력보정용구인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1-2)</sup>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삶의 질의 증진을 위해 잘 보이는 것에 대한 욕구는 더욱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된다.<sup>3)</sup> 안경은 의학적 치료를 위한 도구의 일종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경사가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안보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확대되는 이 시대에 있어 눈의 시력 보호 및 관리 그리고 안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는 직업이 바로 안경사이다.

안경사의 첫 배출은 1989년 10월 22일 1회 안경사가 1281명을 시작으로 2회 때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약 1,500명 정도의 안경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2016년 제 29회 안경사 국가고시의 합격률은 최근 10년간의 합격률보다 높은 76.1%의 합격률을 나타냈고, 1,435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sup>4)</sup> 안경사 배출인원의 증가와 기준에 누적된 안경사 그리고 안경원의 지속적인 창업 증가로 인해 안경원 간의 무한경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된 라식의 도입으로 인하여 시력관리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욱 넓어졌으며 이후 대형화된 그리고 브랜드화 된 프랜차이즈 안경원의 탄생은 고객 중심 서비스의 향상과 안경업계 전반의 유통구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반면에 기존의 많은 영세안경원은 자본과 마케팅 역량 등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쟁력 약화로 인한 매출감소 및 폐업으로 이어지는 자본논리의 시장 결정 속에 놓이게 되었다.<sup>5)</sup>

안경광학과 졸업과 국가고시 합격을 통한 안경원 창업은 더 이상 확실한 이윤창출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안경광학과 졸업 후 면허 취득에도 불구하고 안경사 관련 취업보다는 전공과 다른 일을 하거나 안경사로서의 취업을 보류하는 일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안경사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국 안경원의 개설 수, 전국 안경광학과 의 모집인원, 연도별 안경사 국가시험 합격자 그리고 안경사의 취업과 미취업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향후 안경원 개설 및 안경사 인력배출에 있어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안경사협회에 등록되어진 안경사를 중심으로 신상변동(이직) 그리고 폐업 및 퇴사로 신고한 안경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협회 미등록한 안과근무자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는 회비를 납입하고, 기준일로부터 2년 동안만 납입효력이 적용되어진 자로 이루어졌다. 이 모든 대상자의 관리는 대한안경사협회 그리고 국가고시원 포털에서 제공하는 안경사의 합격률과 인원 현황 자료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되어졌다.

## - 결과 및 고찰 -

안경사 연도에 따른 응시율과 합격자 그리고 합격률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011년 전국 안경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1,972명에서 2012년 2,23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전국 안경광학과 의 증설에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6년 1,886명이 응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남성의 응시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여성 지원자의 경우 2012년 46.64%의 응시비율을 정점으로 2016년 42.10%로 조금씩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경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는 60%대의 합격률을, 2014년부터 70% 중반의 합격률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6년간(2011년~2016년) 응시수는 조금씩 감소하였지만 안경사의 합격률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합격자의 평균적인 인원수는 약 1,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합격률을 높여 안경사의 수급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경사의 양적인 수급 유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우수 안경사 인력의 부족과 질적인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Academy

Table 1. Successful candidate and the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분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ndidate		1972	2239	2172	2193	1986	1886
Gender	male(%)	1175(59.58)	1220(54.49)	1159(53.36)	1171(53.40)	1105(55.64)	1092(57.90)
	female(%)	797(40.42)	1019(45.51)	1013(46.64)	1022(46.60)	881(44.36)	794(42.10)
Successful candidate		1250	1529	1398	1671	1459	1435
The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63.4	68.3	64.4	76.2	73.3	76.1

Fig. 1. Successful candidate and the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by g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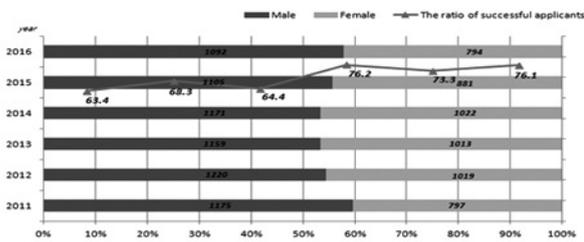


Table 2. The current status of founder, employed person and unemployed person in 2016

Classification (2016)	Population	Founder		Total	Employed person		Total	Unemployed person		Total	Total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Total	51,529,338 (100%)	6,931 (84.43)	1,278 (15.57)	8,209 (100.00)	4,884 (67.62)	2,339 (32.38)	7,223 (100.00)	1,035 (63.61)	592 (36.39)	1,627 (100.00)	17,059 (100.00)
Seoul	10,022,181 (19.45%)	1,602 (85.53)	271 (14.47)	1,873 (22.82)	1,122 (71.88)	439 (28.12)	1,561 (21.61)	318 (75.53)	103 (24.47)	421 (25.88)	3,855 (22.60)
Busan	3,513,777 (6.82%)	488 (81.47)	111 (18.53)	599 (7.30)	305 (59.92)	204 (40.08)	509 (7.05)	46 (52.87)	41 (47.13)	87 (5.35)	1,195 (7.01)
Daegu	2,487,829 (4.83%)	391 (83.91)	75 (16.09)	466 (5.68)	225 (64.66)	123 (35.34)	348 (4.82)	70 (73.68)	25 (26.32)	95 (5.84)	909 (5.33)
Incheon	2,925,815 (5.68%)	309 (85.36)	53 (14.64)	362 (4.41)	334 (74.55)	114 (25.45)	448 (6.20)	61 (62.89)	36 (37.11)	97 (5.96)	907 (5.32)
Gwangju	1,472,199 (2.86%)	247 (73.29)	90 (26.71)	337 (4.11)	151 (46.32)	175 (53.68)	326 (4.51)	35 (45.45)	42 (54.55)	77 (4.73)	740 (4.34)
Daejeon	1,518,775 (1.51%)	231 (82.80)	48 (17.20)	279 (3.40)	202 (65.16)	108 (34.84)	310 (4.29)	59 (58.42)	42 (41.58)	101 (6.21)	690 (4.04)
Ulsan	1,173,534 (1.17%)	186 (86.92)	28 (13.08)	214 (2.61)	137 (57.56)	101 (42.44)	238 (3.30)	22 (41.51)	31 (58.49)	53 (3.26)	505 (2.96)
Gyeonggi	12,522,606 (12.52%)	1,365 (84.73)	246 (15.27)	1,611 (19.62)	1,080 (71.57)	429 (28.43)	1,509 (20.89)	232 (62.70)	138 (37.30)	370 (22.74)	3,490 (20.46)
Gwangwon	1,549,507 (3.01%)	202 (88.21)	27 (11.79)	229 (2.79)	153 (70.83)	63 (29.17)	216 (2.99)	24 (47.06)	27 (52.94)	51 (3.13)	496 (2.91)
Chungbuk	1,583,952 (3.07%)	240 (86.96)	36 (13.04)	276 (3.36)	135 (66.83)	67 (33.17)	202 (2.80)	22 (56.41)	17 (43.59)	39 (2.40)	517 (3.03)
Chungnam	2,288,533 (4.44%)	272 (85.00)	46 (14.38)	320 (3.90)	201 (75.56)	65 (24.44)	266 (3.68)	23 (57.50)	17 (42.50)	40 (2.46)	626 (3.67)
Jeonbuk	1,869,711 (3.63%)	273 (82.23)	59 (17.77)	332 (4.04)	198 (65.13)	106 (34.87)	304 (4.21)	24 (63.16)	14 (36.84)	38 (2.34)	674 (3.95)
Jeonnam	1,908,996 (3.70%)	230 (80.42)	56 (19.58)	286 (3.48)	161 (65.45)	85 (34.55)	246 (3.41)	13 (52.00)	12 (48.00)	25 (1.54)	557 (3.27)
Gyeongbuk	2,702,826 (5.25%)	359 (89.08)	44 (10.92)	403 (4.91)	161 (71.88)	63 (28.13)	224 (3.10)	32 (66.67)	16 (33.33)	48 (2.95)	675 (3.96)
Gyeongnam	3,364,702 (6.53%)	449 (86.02)	73 (13.98)	522 (6.36)	255 (59.30)	175 (40.70)	430 (5.95)	38 (66.67)	19 (33.33)	57 (3.50)	1,009 (5.91)
Jeju	624,395 (1.21%)	85 (85.00)	15 (15.00)	100 (1.22)	64 (74.42)	22 (25.58)	86 (1.19)	16 (57.14)	12 (42.86)	28 (1.72)	214 (1.25)

2016년 안경원 개설 수, 안경관련업 취업자 수, 그리고 미취업자 수에 대한 지역별 수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인구 대비 3,020명당 1명 정도의 안경사가 있는 것으로 인구 1,000명당으로 계산하면 약 0.33명의 안경사 인력이 구성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안경원 개설자는 총 8,209명(48.12%)으로 남자 6,931명(84.43%) 그리고 여자 1,278명(15.57%)이고, 안경사 취업자는 총 7,223명(42.34%)으로 남자 4,884명(67.62%) 그리고 여자 2,339명(32.38%)이며, 미취업자는 총 1,627명으로 남자 1,035명(63.61%) 그리고 여자 592명(36.39%)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안경사중 9.53%로써 약 10명 중 1명이 동종업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인구비보다 안경사 비가 더 높은 곳은 서울, 부산, 그리고 대구였으며, 안경사 비가 더 낮은 곳은 인천, 강원, 그리고 충북 등이었다. 전체 개설자 8,209명 중 서울이 1,873명(22.82%), 경기 1,611명(19.62%) 그리고 부산 599명(7.3%) 순으로 많았다. 전체 안경관련업 취업자 7,223명 중에서 서

울이 1,561명(21.61%), 경기 1,509명(20.89%) 그리고 부산 509명(7.05%) 순으로 취업자가 많았다. 인천의 경우 개설비중보다 취업자 비중이 더 높았으며, 광주, 대전, 그리고 울산 역시 개설보다는 취업비중이 더 높았다. 남자 안경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75.56%, 인천 74.55%, 그리고 제주 74.42%의 순이었으며, 여자 안경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광주 53.68%, 울산 42.44%, 그리고 경남 40.70%, 순이며, 전체 안경업계 미종사자의 경우 서울 421명(25.88%), 경기 370명(22.74%), 그리고 대전 101명(6.21%)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기준 안경광학과 입학생의 남녀의 비는 평균 55:45 정도이지만, 개설자의 경우 85:15, 취업자 및 안경업계 미종사자는 65:35정도로 여학생의 안경사 취업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처음 안경광학과에 지원한 남녀의 비가 거의 동등한 비율을 나타내에도 불구하고 여성 안경사 취업을 부진이 안경사의 전체 수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The current status of funder by year

Classification	Founder(2013)		Total	Founder(2014)		Total	Founder(2015)		Total	Founder(2016)		Total	Rate of chang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Total	6,316 (85.19)	1,098 (14.81)	7,414 (100)	6,431 (85.12)	1,124 (14.88)	7,223 (100)	6,740 (84.69)	1,218 (15.31)	7,958 (100)	6,931 (84.43)	1,278 (15.57)	8,209 (100)	10.72
Seoul	1,539 (88.09)	208 (11.91)	1,747 (23.56)	1,538 (87.39)	222 (12.61)	1,561 (21.61)	1,581 (85.88)	260 (14.12)	1,841 (23.13)	1,602 (85.53)	271 (14.47)	1,873 (22.82)	7.21
Busan	457 (81.75)	102 (18.25)	559 (7.54)	460 (81.56)	104 (18.44)	509 (7.05)	475 (81.34)	109 (18.66)	584 (7.34)	488 (81.47)	111 (18.53)	599 (7.30)	7.15
Daegu	359 (84.07)	68 (15.93)	427 (5.76)	372 (85.13)	65 (14.87)	348 (4.82)	377 (84.72)	68 (15.28)	445 (5.59)	391 (83.91)	75 (16.09)	466 (5.68)	9.13
Incheon	282 (88.13)	38 (11.88)	320 (4.32)	291 (88.99)	36 (11.01)	448 (6.20)	309 (86.55)	48 (13.45)	357 (4.49)	309 (85.36)	53 (14.64)	362 (4.41)	13.12
Gwangju	216 (71.05)	88 (28.95)	304 (4.10)	230 (70.09)	94 (29.01)	326 (4.51)	244 (72.19)	94 (27.81)	338 (4.25)	247 (73.29)	90 (26.71)	337 (4.11)	10.85
Daejeon	210 (81.40)	48 (18.60)	258 (3.48)	217 (81.89)	48 (18.11)	310 (4.29)	224 (82.35)	48 (17.65)	272 (3.42)	231 (82.80)	48 (17.20)	279 (3.40)	8.13
Ulsan	166 (84.69)	30 (15.31)	196 (2.64)	170 (85.86)	28 (14.14)	238 (3.30)	181 (85.38)	31 (14.62)	212 (2.66)	186 (86.92)	28 (13.08)	214 (2.61)	9.18
Gyeonggi	1,191 (85.81)	197 (14.19)	1,388 (18.72)	1,216 (86.12)	196 (13.88)	1,509 (20.89)	1,322 (85.57)	223 (14.43)	1,545 (19.41)	1,365 (84.73)	246 (15.27)	1,611 (19.62)	16.06
Gwangwon	183 (87.98)	25 (12.02)	208 (2.81)	187 (87.38)	27 (12.62)	216 (2.99)	195 (88.64)	25 (11.36)	220 (2.76)	202 (88.21)	27 (11.79)	229 (2.79)	10.09
Chungbuk	219 (87.60)	31 (12.40)	250 (3.37)	225 (87.21)	33 (12.79)	202 (2.80)	231 (87.17)	34 (12.83)	265 (3.33)	240 (86.96)	36 (13.04)	276 (3.36)	10.4
Chungnam	239 (85.97)	39 (14.03)	278 (3.75)	239 (85.66)	40 (14.34)	266 (3.68)	260 (86.09)	42 (13.91)	302 (3.79)	272 (85.00)	46 (14.38)	320 (3.90)	15.10
Jeonbuk	247 (82.61)	52 (17.39)	299 (4.03)	261 (81.56)	59 (18.44)	304 (4.21)	265 (81.79)	59 (18.21)	324 (4.07)	273 (82.23)	59 (17.77)	332 (4.04)	11.03
Jeonnam	215 (81.13)	50 (18.87)	265 (3.57)	214 (80.15)	53 (19.85)	246 (3.41)	224 (80.29)	55 (19.71)	279 (3.51)	230 (80.42)	56 (19.58)	286 (3.48)	7.92
Gyeongbuk	322 (89.69)	37 (10.31)	359 (4.84)	318 (89.33)	38 (10.67)	224 (3.10)	342 (89.53)	40 (10.47)	382 (4.80)	359 (89.08)	44 (10.92)	403 (4.91)	12.25
Gyeongnam	397 (85.19)	69 (14.81)	466 (6.29)	415 (85.71)	68 (14.29)	430 (5.95)	429 (86.49)	67 (13.51)	496 (6.23)	449 (86.02)	73 (13.98)	522 (6.36)	12.01
Jeju	74 (82.22)	16 (17.78)	90 (1.21)	78 (85.71)	13 (14.29)	86 (1.19)	81 (84.38)	15 (15.63)	96 (1.21)	85 (85.00)	15 (15.00)	100 (1.22)	11.11

전국 연도별 지역에 따른 개설자 데이터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2013년 개설자 7,414명 기준 2016년 8,209명으로 10.72% 증가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이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전체 개설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2013년 1,747명에서 2016년 1,873명으로 증가하였고(7.21%), 특히 경기의 경우 2013년 1,388명에서 2016년 1,611명으로(16.06%) 가장 큰 증가 폭을 그리고 충남, 인천, 경북의 순이었다. 예 5) 등의 선형연구에 의하면 안경원의 분포를 통한 의료접근도(특별시와 광역시 중심) 연구에서 1개 안경원 대비 인구수는 대구광역시 2,848명, 광주광역시 2,979명, 서울특별시 3,276명, 그리고

대전광역시 3,383명 순으로 의료접근도 및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역에 개설된 안경광학과의 개설수와 다소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지역적인 안경광학과의 불균형은 2013년까지 교육부에서는 보건의료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지역 안배를 고려하였으나, 2014학년도부터 지역 안배 없이 정원배정을 전국단위로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불균형은 앞으로도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다소 심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sup>6)</sup> 결국 안경사 역시 학령인구수의 추이에 따라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출 될 확률이 높을 것이며, 이는 지역의 안경사 공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4. The current status of employed person by year

Classification	Employed person(2013)		Total	Employed person(2014)		Total	Employed person(2015)		Total	Employed person(2016)		Total	Rate of chang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Total	3,640 (69.56)	1,593 (30.44)	5,233 (100)	3,855 (70.13)	1,642 (29.87)	5,497 (100)	4,582 (83.90)	2,068 (31.10)	6,650 (100)	4,884 (67.62)	2,339 (32.38)	7,223 (100)	38.02
Seoul	829 (73.23)	303 (26.77)	1,132 (21.62)	900 (75.13)	298 (24.87)	1,198 (21.79)	1,085 (73.41)	393 (26.59)	1,478 (22.23)	1,122 (71.88)	439 (28.12)	1,561 (21.61)	37.89
Busan	231 (59.54)	157 (40.46)	388 (7.41)	245 (60.79)	158 (39.21)	403 (7.33)	294 (60.49)	192 (39.51)	486 (7.31)	305 (59.92)	204 (40.08)	509 (7.05)	31.18
Daegu	142 (73.58)	51 (26.42)	193 (3.69)	160 (72.07)	62 (27.93)	222 (4.04)	190 (64.19)	106 (35.81)	296 (4.45)	225 (64.66)	123 (35.34)	348 (4.82)	80.31
Incheon	230 (71.62)	91 (28.35)	321 (6.13)	244 (73.27)	89 (26.73)	333 (6.06)	314 (73.54)	113 (26.46)	427 (6.42)	334 (74.55)	114 (25.45)	448 (6.20)	39.56
Gwangju	102 (43.97)	130 (56.03)	232 (4.43)	119 (47.41)	132 (47.41)	251 (52.59)	154 (48.28)	165 (51.72)	319 (4.80)	151 (46.32)	175 (53.68)	326 (4.51)	40.51
Daejeon	165 (65.22)	88 (34.78)	253 (4.83)	177 (68.60)	81 (31.40)	258 (4.69)	191 (67.02)	94 (32.98)	285 (4.29)	202 (65.16)	108 (34.84)	310 (4.29)	22.52
Ulsan	113 (66.86)	56 (33.14)	169 (3.23)	113 (67.66)	54 (32.34)	167 (3.04)	129 (61.14)	82 (38.86)	211 (3.17)	137 (57.56)	101 (42.44)	238 (3.30)	40.82
Gyeonggi	783 (75.73)	251 (24.27)	1,034 (19.76)	795 (74.65)	270 (25.35)	1,065 (19.37)	983 (73.30)	358 (26.70)	1,341 (20.17)	1,080 (71.57)	429 (28.43)	1,509 (20.89)	45.93
Gwangwon	125 (72.25)	48 (27.75)	173 (3.31)	123 (72.78)	46 (27.22)	169 (3.07)	145 (71.78)	57 (28.22)	202 (3.04)	153 (70.83)	63 (29.17)	216 (2.99)	24.85
Chungbuk	114 (67.86)	54 (32.14)	168 (3.21)	111 (65.68)	58 (34.32)	169 (3.07)	118 (66.29)	60 (33.71)	178 (2.68)	135 (66.83)	67 (33.17)	202 (2.80)	20.23
Chungnam	126 (74.12)	44 (25.88)	170 (3.25)	141 (77.05)	42 (22.95)	183 (3.33)	172 (74.78)	58 (25.22)	230 (3.46)	201 (75.56)	65 (24.44)	266 (3.68)	56.47
Jeonbuk	165 (64.71)	90 (35.29)	255 (4.87)	171 (64.53)	94 (35.47)	265 (4.82)	188 (67.14)	92 (32.86)	280 (4.21)	198 (65.13)	106 (34.87)	304 (4.21)	19.21
Jeonnam	129 (69.73)	56 (30.27)	185 (3.54)	141 (68.78)	64 (31.22)	205 (3.73)	154 (67.25)	75 (32.75)	229 (3.44)	161 (65.45)	85 (34.55)	246 (3.41)	32.97
Gyeongbuk	117 (74.05)	41 (25.95)	158 (3.02)	125 (76.22)	39 (23.78)	164 (2.98)	156 (75.00)	52 (25.00)	208 (3.13)	161 (71.88)	63 (28.13)	224 (3.10)	41.77
Gyeongnam	213 (65.14)	114 (25.33)	327 (1.43)	226 (62.78)	134 (37.22)	360 (6.55)	247 (62.22)	150 (37.78)	397 (5.97)	255 (59.30)	175 (40.70)	430 (5.95)	31.49
Jeju	56 (74.67)	19 (25.33)	75 (1.43)	64 (75.29)	21 (24.71)	85 (1.55)	62 (74.70)	21 (25.30)	83 (1.25)	64 (74.42)	22 (25.58)	86 (1.19)	14.66

Table 5. The current status of unemployed person by year

Classification	Unemployed person(2013)		Total	Unemployed person(2014)		Total	Unemployed person(2015)		Total	Unemployed person(2016)		Total	Rate of change
	male	female											
Total	820 (64,11)	459 (35,89)	1279 (100)	846 (66,88)	419 (33,12)	1,265 (100)	919 (65,04)	494 (34,96)	1,413 (100)	1,035 (63,61)	592 (36,39)	1,627 (100)	27,20
Seoul	260 (74,71)	88 (25,29)	348 (27,21)	261 (76,76)	79 (23,24)	340 (26,88)	290 (74,74)	98 (25,26)	388 (27,46)	318 (75,53)	103 (24,47)	421 (25,88)	20,97
Busan	60 (46,88)	68 (53,13)	128 (10,01)	49 (55,68)	39 (44,32)	88 (6,96)	41 (57,75)	30 (42,25)	71 (5,02)	46 (52,87)	41 (47,13)	87 (5,35)	(-) 32,03
Daegu	49 (70,00)	21 (30,00)	70 (5,47)	56 (68,29)	26 (31,71)	82 (6,48)	68 (79,07)	18 (20,93)	86 (6,09)	70 (73,68)	25 (26,32)	95 (5,84)	35,71
Incheon	29 (61,70)	18 (38,30)	47 (3,67)	45 (71,43)	18 (28,57)	63 (4,98)	53 (63,86)	30 (36,14)	83 (5,87)	61 (62,89)	36 (37,11)	97 (5,96)	106,38
Gwangju	31 (58,49)	22 (41,51)	53 (4,14)	26 (4,57)	16 (61,90)	42 (38,10)	24 (47,06)	27 (52,94)	51 (3,61)	35 (45,45)	42 (54,55)	77 (4,73)	45,28
Daejeon	57 (63,33)	33 (36,67)	90 (7,04)	49 (56,32)	38 (43,68)	87 (6,88)	61 (60,40)	40 (39,60)	101 (7,15)	59 (58,42)	42 (41,58)	101 (6,21)	12,22
Ulsan	33 (52,38)	30 (47,62)	63 (4,93)	26 (56,52)	20 (43,48)	46 (3,64)	16 (47,06)	18 (52,94)	34 (2,41)	22 (41,51)	31 (58,49)	53 (3,26)	(-) 15,87
Gyeonggi	143 (63,84)	81 (36,16)	224 (17,51)	166 (63,85)	94 (36,15)	260 (20,55)	193 (59,75)	130 (40,25)	323 (22,86)	232 (62,70)	138 (37,30)	370 (22,74)	65,17
Gwangwon	19 (86,36)	3 (13,64)	22 (1,72)	25 (65,79)	13 (34,21)	38 (3,00)	19 (50,00)	19 (50,00)	38 (2,69)	24 (47,06)	27 (52,94)	51 (3,13)	131,81
Chungbuk	30 (62,50)	18 (37,50)	48 (3,75)	22 (66,67)	11 (33,33)	33 (2,61)	21 (60,00)	14 (40,00)	35 (2,48)	22 (56,41)	17 (43,59)	39 (2,40)	(-) 18,75
Chungnam	19 (61,29)	12 (38,71)	31 (2,42)	19 (59,38)	13 (40,63)	32 (2,53)	21 (60,00)	14 (40,00)	35 (2,48)	23 (57,50)	17 (42,50)	40 (2,46)	29,03
Jeonbuk	25 (53,19)	22 (46,81)	47 (3,67)	22 (68,75)	10 (31,25)	32 (2,53)	24 (68,57)	11 (31,43)	35 (2,48)	24 (63,16)	14 (36,84)	38 (2,34)	(-) 19,14
Jeonnam	4 (36,36)	7 (63,64)	11 (0,86)	7 (53,85)	6 (46,15)	13 (1,03)	14 (63,64)	8 (36,36)	22 (1,56)	13 (52,00)	12 (48,00)	25 (1,54)	127,27
Gyeongbuk	27 (79,41)	7 (20,59)	34 (2,66)	35 (79,55)	9 (20,45)	44 (3,48)	30 (73,17)	11 (26,83)	41 (2,90)	32 (66,67)	16 (33,33)	48 (2,95)	41,17
Gyeongnam	19 (48,72)	20 (51,28)	39 (3,05)	24 (54,55)	20 (45,45)	44 (3,48)	29 (61,70)	18 (38,30)	47 (3,33)	38 (66,67)	19 (33,33)	57 (3,50)	46,15
Jeju	15 (62,50)	9 (37,50)	24 (1,88)	14 (66,67)	7 (33,33)	21 (1,66)	15 (65,22)	8 (34,78)	23 (1,63)	16 (57,14)	12 (42,86)	28 (1,72)	16,66

전국 연도별 지역에 따른 취업자 데이터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전국 안경사 취업자의 경우 2013년 5,233명, 2014년 5,497명, 2015년 6,650명, 그리고 2016년 7,223명으로 안경원 취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모두 상승하였으며, 서울의 경우 2013년 1,132명, 2016년 1,561명으로 37.89% 증가하였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 2013년 193명에서 2016년 348명으로 80.31%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반적인 안경원의 개원 수 증가와 더불어 시행되어지고 있는 면허신고제의 영향을 다소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전국 연도별 지역별 미취업자 데이터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안경사 면허 취득 후 안경업계 미종사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3년 기준 2016년 27.2% 증가한 1,627명

이 타 업종 및 미 종사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면허 신고 안경사 17,059명 중 10.48%로 10명 중 1명이 동종업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가고시 합격률 증가로 인한 안경사 배출의 증가와 더불어 진행되는 미취업자의 증가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며 이러한 미취업자의 증가는 안경사 직업에 대한 이직율과 관계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 의료 부문 14개 직종의 인력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 2015~2030년 보건 의료 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한 결과 간호사 18만 3,829명, 응급구조사 1만 901명, 그리고 안경사 4,184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연구되었다.<sup>7)</sup> 사회가 고도화되고 선진화되면서 365일 중 연간 255일(주 5일 근무 확대, 법정공휴일 및 주말 제외) 정도로 연간 근무일수가 적어지고 여성 의료기사의 경우 결혼 또는 출

산 이후 육아나 교육으로 인해 전공직종에 종사하는 비중 등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배출되어지는 안경사의 부족현상은 이제 시작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경기불황과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속도가 늦어지고 이로 인한 취업과 구인의 어려움 속에서도 2013년 기준 안경업계 취업자의 증가율은 38.02%, 안경원 개설의 평균 증가율은 10.72%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안경사의 부족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경사의 배출은 증가하는데 현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고 안경업계가 아닌 곳으로 전업하는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안경사로서의 직업적 환경과 여건이 여전히 직장으로서 정상궤도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sup>8-9)</sup> 그만큼 초임 안경사의 낮은 기본급과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는 업무환경 등의 기타 요소는 여타 의료기사의 의료적 직무와 비교하여 서비스업무의 외적요소에 치중되어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지 못한 영향이 크다.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자영업의 한정된 직무영역의 범위 속에서의 취업은 향후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으며 기본적인 4대보험이나 퇴직 이후의 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 시스템 아래에서는 결코 미래를 담보 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전향적인 직업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sup>10)</sup>

또한 중형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업체만이 살아남게 되는 자본논리로 인해 본인 안경원을 가지고자 하는 소규모의 1인 안경원 개원에 대한 접근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주요 안경 및 렌즈와 콘택트렌즈 공급업체들 역시 안정적인 대규모 법인과의 공급계약을 우선하게 되어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영세 안경원의 가격경쟁력 및 운영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외국 대자본의 접근 역시 시기가 문제일 뿐 결국 허용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안경사의 개별적인 안정적인 취업 및 높은 수준의 직업 경쟁력과 존중받는 의료인으로서의 대우를 위한 처우개선과 경영 환경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결론 -

국민 안보건과 시력관리 서비스의 일선에 있는 안경사의 책무는 여타 보건직종의 업무와는 조금 다른 시점에서 차별화된다. 안경사 면허라는 의료기사 등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보건의료인의 업무와 더불어 창업과 개원을 통해 운영되며 안경과 콘택트렌즈로 대표되어지는 상업서비스의 병행구조

는 현재 국민 1,000명당 0.33명의 안경사로 대변되어지는 현 수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비교 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여준다.<sup>11)</sup> 김<sup>12)</sup> 등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면허신고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악되지 않는 25,968명의 안경사 면허증소지자가 있으며, 이들 모두가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회, 대한방사선학회, 대한물리치료사회 등 의료기사단체들은 법률상임의 단체이며, 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전체 30여만 명의 의료기사들 중 협회 가입률이 30%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3)</sup> 보건인력의 기본적인 수치가 정확히 통계화되고 구체화가 이루어져야만 향후 의료기사의 수요공급 정책과 이에 맞는 합리적인 정원조정 및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직에 근무할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면허소지자의 수치와 실제공급 될 수 있는 안경사의 수치가 혼동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실제 현장으로의 안경사 공급가능 수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잠재적인 공급자로 남아 있는 미종사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하나의 방법으로 만약 이들이 현직으로 재 복귀하고자 할 때 반드시 협회를 통해 복귀하도록 하고 복귀 신청가능 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여 두고 이와 더불어 1년 이상 일정기간의 충분한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야만 안경사 면허와 지위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그렇게 되면 매년 복귀신청기간의 시점에서 2~3년 이후의 안경사의 정확한 인력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확한 안경사 인원의 파악은 안경사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경사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수입보장이 가능한 직업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수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 본 연구는 판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처방에서 조제가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안경사가 수행하고 있으나 굴절검사의 제한과 세극등과 같은 의료기기의 사용이 어려워 전문 콘택트렌즈 피팅 및 처방도 가능하지 않다. 교정용 안경렌즈의 경우 의료기구로 분류되지만 안경테의 경우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료보험의 적용이 어려우며 무엇보다 국내 안경 가격의 경우 안경테와 렌즈의 일반상품 가격 속에 검안비와 조제가공비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판매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안경수요자 및 환

자 역시 이를 당연히 하는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안경 광학과에서 배우는 실습과 이론학습의 절반이상이 검안과 조제 및 가공에 대한 학습이며, 이를 통해 국가고시를 통과 해야만 안경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서 전문 검안 안경사로서 인정받아야할 준 의료인이지만 이러한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피팅 부분에서도 무료 서비스를 넘어 기술 공임비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안 및 조제가공비가 국민 안보건을 위한 전문적인 부분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고정 비용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형 안경원은 가격과 많은 상품을 가지고 마케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소형안경원의 경우는 상품경쟁이 아니어도 기본 검안 및 조제가공비를 바탕으로도 기본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한 지역밀착 시스템으로 바뀌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 안경사의 접근을 높일 수 있는 근무 환경 여건의 조성 또한 안경사 수급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한 여성안경사의 경력이 단절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분화된 직업 환경과 파트 타임의 합리적인 보상제도가 있을 때, 이는 결국 안경사의 근무선택 권 및 처우 개선으로 이어 질 수 있으며, 안경광학과의 입학 지원 확대와 졸업 후 안경사로의 직업 선택에도 큰 영향을

주어 안경사 수급 해결과 함께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초적인 제도 기틀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안경원 수와 안경사의 적절한 수가 얼마 가 될 것인지 예단만 하고 수치 속에서만 갇혀 있다면 정책수립의 모호함이 더 깊어질 것이며, 경기의 흐름을 타고 자본 논리에만 휩쓸려 과당경쟁이 허용되는 경공업종으로만 취급되고 말 것이다. 성장의 시대에서는 수요와 공급인력의 통제와 양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제는 자율 경쟁의 토대 속에서 스스로의 권익과 직업 환경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질적인 향상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며 수익적 측면에서도 안기능검사와 조제가공으로 대표되어지는 안경사의 업무가 보건지식과 업무로 인정받는 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사의 동등한 지위를 받고 대자본의 안경 산업 논리에서 안경사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용구로써 조제안경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회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기타 보건직 공무원, 유통메트리스트 등 다양한 안경사의 영역이 펼쳐질 수 있는 직업영역의 확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

논문 원문보기 : [한국안광학회 홈페이지](http://www.koos.or.kr)

<http://www.koos.or.kr> 또는 <https://koosjams.or.kr>

## REFERENCES

1. Hur BH, Jeon IC et al. Korean optometric history, 1st ed,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2014;704-705.
2.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The rate of use of glasses and contact lens in county, 2015.
3. KOSIS.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_L4301&vw\\_cd=&list\\_id=&scr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_L4301&vw_cd=&list_id=&scr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August 11, 2016).
4. Mah KC, Lee HJ et al. The projection of demand and supply for opticianry manpower. Korean J Vis Sci. 2001;3(1):25-40.
5. Ye KH, Lee WS. Medical accessibility analysis by optical store and ophthalmic clinic distribution(Centering on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J Korean Oph Opt Soc. 2016;21(4):159-171.
6. Seo JK, Shim HS et al. The status, problems and solutions of korean optometrist(optician). Korean J Vis Sci. 2014;16(3):273-291.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id-to-long-term estimation results of healthcare manpower supply and demand, 2015. <https://www.kihasa.re.kr/web/news/report/view.do?ano=8611&menuId=20&tid=51&bid=79>(November 5 2016).
8. Shin HS, Kim JS et. al. Survey on the welfare of optometrists in busan. Korean J Vis Sci. 2013;15(4): 361-375.
9. Lee SM. A study of ankyeongsa satisfaction and need according to working hours and off-day: on the position. Korean J Vis Sci. 2013;15(4):377-384.
10. The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Harsh working conditions, 2011. <http://www.optic.or.kr>(February 9, 2016).
11. Kim SH, Lim YM. The improvement proposal of control system for supply and demand of korean optometrist. J Korean Oph Opt Soc. 2007;12(4):9-14.
12. Daejonilbo. Optician, 2017.[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58445](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58445)(April 19, 2017).
13. Kim SH, Lim YM. The sight corrective spectacle frames as a medical devices. J Korean Oph Opt Soc. 2007;12(3):143-149.